

보도자료

- 신 : 언론사 경제·법조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문 의 : 경실련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활동가 T. 02-774-4551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T. 02-723-530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 T. 02-774-4155
- 일 자 : 2016. 8. 19. (금)
- 제 목 :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기자회견담회 (총 2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담회 개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경실련,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2016년 8월 22일(월)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동송동 소재)

1.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매대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대한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특히 법원의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3. 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4. 이에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 우리 단체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최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6.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향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일 시 : 2016년 8월 22일(월) 오전11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동송동 소재)

○ 주 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자간담회 순서

- 사 회 : 최인숙 /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 : 고계현 / 경실련 사무총장
- 홈플러스 형사재판 비판 : 좌혜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변호사)
- 롯데홈쇼핑 형사고발 개요 : 이은우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질의응답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